

## 한국의 외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사 및 발전 방향\*

권오량\*\*

### <요약>

이 논문은 한국의 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역사를 제1차 교육과정부터 최근의 교육과정까지 검토한다. 검토는 각각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그 틀, 교과목, 어휘, 문법, 목표, 교수법, 그리고 평가를 분석한다. 1955년에 도입된 외국어 교육과정은 그간 총 8차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의 교육과정은 2011년에 공표되었다. 교육과정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으나, 어휘만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학습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다. 논문은 현재의 교육과정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세분화된 교과목, 성취기준 진술의 애매성, 의사소통기능과 성취기준 사이의 연계의 부족, 개발 기간의 부족, 개발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논문은 앞으로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핵심어】 교육과정, 외국어 교육과정, 영어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

---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에서 개최한 학술대회(2012. 12. 7)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oryang@snu.ac.kr)

## 1. 서론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어 교육은, 중국어 교육을 외국어 교육으로 본다면 삼국시대 혹은 고조선 시대까지로 거슬러 올라 갈 수도 있을 터이니, 대단히 오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국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행한 외국어 교육은 해방 이후에 시작되었다. 본고는 해방 이후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피고 현행 교육과정의 특성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외국어 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외국어 교육과정을 논함에 있어서 흔히 구별하는 것이 교육과정(curriculum)과 교수요목(syllabus)이다. 일반적으로는 교육과정이 더 넓은 의미를 가지며, 교수내용과 방법 및 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는데 비해, 교수요목은 내용을 주로 다룬다(Richards, 2001).

교육과정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교수요목인데,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교수요목이 달라질 수 있다. 교수요목의 분류는 일찍이 Wilkins(1976)가 종합적(synthetic) 교수요목과 분석적(analytic) 교수요목으로 분류한 바가 있다. 종합적 교수요목이라 함은 학습자가 단편적인 지식들을 차례로 배운 다음 이것을 종합(synthesize)하여 하나의 언어 지식 체계를 얻도록 하는 교수요목을 말하는데, 구조적(structural) 교수요목, 상황적(situational) 교수요목, 기능적(functional) 교수요목 등이 모두 종합적 교수요목이라고 볼 수 있다. 분석적 교수요목은 학습자가 통째로 언어 입력에 노출되면서 언어 자료를 스스로 분석하여서 언어규칙을 도출하여 언어를 학습하도록 짜여진 교수요목을 말하는데, 과업기반(task-based) 교수요목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수요목의 또 다른 분류법은 결과지향적(product-oriented) 교수요목과 과정지향적(process-oriented) 교수요목으로 나누는 것이다. 결과지향적 교수요목은 그 내용이 교육과정이 끝난 후의 결과물을 기술하는 것인데, 위의 Wilkins(1976)가 말한 종합적 교수요목들이 이에 속한다. 반면 과정지향적 교수요목은 위에서 말한 과업기반적 교수요목처럼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과정들을 기술한다.

한편, Brown(1995)은 이들을 통틀어 7가지의 교수요목을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 표1의 1-6번은 종합적 교수요목이자 결과중심 교수요목이고, 7번은 분석적 교수요목이자 과정중심 교수요목이라 할 수 있다.

표 1. 외국어 교수요목들

교수요목	과정과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
1. 구조적 (Structural)*	문법적, 음운적 구조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배열함
2. 상황적 (Situational)	상황(은행, 슈퍼마켓, 식당에서 등)들을 학생들이 접할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배열함
3. 주제적 (Topical)	주제(건강, 음식, 의류 등)들을 학생들이 접할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차례로 배열함(구조적 순서가 배경이 됨)
4. 기능적 (Functional)	기능(파악하기, 보고하기, 묘사하기 등)들을 시간의 흐름 혹은 유용성을 기반으로 배열함 (구조적, 상황적 순서가 배경이 될 수 있음)
5. 개념적 (Notional)	개념적 범주(기간, 양, 위치 등)들을 시간의 흐름 혹은 유용성을 기반으로 배열함 (구조적, 상황적 순서가 배경이 될 수 있음)
6. 기술적 (Skills)	기술(들어서 개요를 알기, 듣고 추론하기, 읽고 구체적 정보 알기 등)들을 시간의 흐름이나 유용성을 기반으로 배열함 (구조적, 상황적 순서가 배경이 될 수 있음)
7. 과업적 (Task)	과업 기반의 활동(지도 그리기, 지시를 이행하기 등)들을 시간의 흐름이나 유용성을 기반으로 배열함 (구조적, 상황적 순서가 배경이 될 수 있음)

실제 외국어 교육현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된 교육과정은 구조적 교수요목(Structural Syllabus)이다. 이 교수요목은 문법적 교수요목(Grammatical Syllabus)이라고도 불리는데, 교수방법이 문법 번역식 교수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에서나 그 후 인지적 접근법(Cognitive Approach)에서도 여전히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이 되었다. 그 후, 외국어 교육계에서 관심을 끈 중요 교수요목으로는 기능적 교수요목(Functional Syllabus)과 과업적 교수요목(Task-based Syllabus)이라고 볼 수 있다. 기능적 교수요목은 실은 개념적 교수요목(Notional Syllabus)과 함께 묶여서 언급되고, 교육과정을 작성할 때 함께 적용된다. 이 개념적 교수요목과 기능적 교수요목은 Wilkins(1976)가 *Notional Syllabuses* 라는 책에서 그 정의와 예시를 보여주면서 널리 알려졌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Munby(1978)에 의해서 의사소통 교수요목을 발전시키는 바탕이 되었다. 과업중심 교수요목(Task-based Syllabus)은 Krahnke(1987), Candlin과 Murphy(1987) 등에 의해 알려졌는데, 언어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된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과업들을 단계적으로 배열하여서 학습자가 이들 과업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이 교수요목은 다시 세분하여 절차적 교수요목(Procedural Syllabus), 과정적 교수요목(Process Syllabus), 과업적 교수요목(Task Syllabus)등으로 나뉘었으나(Long & Crookes, 1992), 실행에 옮기기에는 과업의 선정, 배열, 언어구조의 도입 등에서 제약이 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외국어 교육에서는 과정중심보다는 결과중심의 접근법을 사용하여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97년 교육부가 “21세기의 외국어교육 성취기준”(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21st Century)을

공표하였는데,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외국어 교육 목표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s), 연계(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공동체(Communities)의 다섯 영역에서 성취기준을 제시하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7). 한편, TESOL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에서는 1997년에 “유치원 이전부터 12학년까지의 학생을 위한 제2언어로서의 영어 성취기준”(ESL Standards for Pre-K - 12 Students)을 발표하여서, 목표 1(Goal 1)에서부터 목표 3(Goal 3)까지를 제시하였는데 (TESOL, 1997), 2006년의 성취기준에서는 다섯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였다(TESOL, 2006). 이 다섯 기준은, 제1 기준에서는 학교 환경에서의 사교적, 간문화적, 교육적 목적을 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제2 기준에서는 언어 분야에서 학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생각, 개념 등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제3 기준에서는 수학 분야에서의 학업 성공에 필요한 정보, 생각, 개념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제4 기준에서는 과학 분야에서의 학업 성공에 필요한 정보, 생각, 개념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 제5 기준에서는 사회학 분야에서의 학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생각, 개념 등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영어과 교육과정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문헌 조사에 나타난 바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개발에 즈음하여 배두본(1997)이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을 다룬 논문이 교육과정을 정면으로 다룬 첫 시도로 보인다. 같은 해에 김주은(J. E. Kim, 1997)은 해외에서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후 배두본(1998)이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를 한 것이 있고, 이화자(1998)가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할 기본 어휘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민찬규(1999)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남정미(Nam, 2005)가 의사소통적 영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장경숙 외 3인(Chang et al., 2011)이 초기 영어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다루었다. 교육과정을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고,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한 사람들도 몇 명 있다. 예를 들어, 표경현(Pyo, 2006)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학생과 교사의 요구 사항이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하였고, 신미경(Shin, 2010)은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목표어 문화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이문우(Lee, 2011)는 국가 교육과정이 교사 양성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최근의 연구로는 김인석, 강봉규(2012)가 중학교 영어회화 수업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효과와 만족도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에 관한 몇몇 연구가 있으나, 통시적으로 검토한 것은 앞에 소개한 배두본(1998)의 연구뿐인데, 이것이 이미 15년 전의 연구여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이론과 교육과정 연구에 대한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외국어과 교육과정을 검토한다.

### 3. 한국의 외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사

현행 외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외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을 고찰하고자 한다. 영어과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이 되고 있으므로 영어과의 교육과정을 먼저 고찰하고, 제2외국어 교육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2 외국어의 경우,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도 선택과목으로 “생활 외국어”라는 이름으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이 중학교에서도 도입되었으나, 그 내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고등학교에서의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 대해서만 고찰하고자 한다.

#### 3.1.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사

한국에서의 공식적인 영어교육은 구한말기인 1883년에 세운 동문학(同文學)이라는 관립영어학교가 처음 시작하였다. 그 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영어교육은 일본의 영어교육정책에 따라서 부침을 하였고, 교수방법도 일본인들에 의한 문법-번역식 교수법이 정착되었다. 해방 후, 영어교육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수행되었으며,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고에서는 해방 이후, 교육과정 제정과 공표의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내용별로 분류하여 비교하여보고자 한다. 다만, 1945년 9월에서 1946년 9월 20일에 이르는 임시조치 기간과 교수요목기에 발표된 것은 임시적인 교육과정이었으므로, 제1차 교육과정부터 고찰하기로 한다.

##### 3.1.1 영어과 교육과정의 틀의 변천

먼저, 교육과정의 틀(frame)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거시적인 관점에서 영어과의 교육과정의 발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2는 각 교육과정기별로 발표된 교육과정의 내용 목차이다.

표 2. 영어과 교육과정 틀의 변천표

교육과정기	교육과정의 주요 목차	비고
제1차 (문교부, 1955a, 1955b)	1. 중학교/고등학교 영어과의 가치와 목적 (가. 외국어 교육의 일반 목적, 나. 영어과의 교육 목적, 다. 중학교/고등학교 영어과의 교육 목적, 라. 중학교/고등학교 영어과의 교육 목표), 2. 중학교/고등학교 영어과 과정 전개의 기본 방침, 3. 중학교/고등학교 영어과 과정 전개의 원칙,	

	4. 중학교/고등학교 영어과 과정, 5. 중학교/고등학교 영어과 과정의 운영상의 주의	
제2차 (문교부, 1963a, 1963b)	I. 목표 (고교는 하부에 지도목표 추가), II. 지도 내용 (1. 듣기와 말하기, 2. 읽기, 3. 쓰기), III. 지도상의 유의점	고교: 제2외국어 동일 체제
제3차 (문교부, 1973, 1974)	가. 목표 (일반목표, 학년 목표), 나. 내용 (1. (중학교 학년별) 언어기능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 2. 언어재료 (학년별 소재, 어휘, 문형)), 다. 지도상의 유의점	중학교: 부록 - 필수어휘표 고교: 제2외국어 동일 체제
제4차 (문교부, 1981)	중학교: 가. 교과목표, 나. 학년 목표 및 내용 (1. 언어 기능(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 2. 언어재료 (소재, 발음, 어휘, 문형 문법)),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1. 지도, 2. 평가)	중학교: 별표 1- 기본어휘표, 별표2- 문형·문법 (학년별)
제5차 (문교부, 1987, 1988)	중학교: 가. 교과 목표, 나. 학년 목표 및 내용 (학년 목표, 언어 기능 (듣기와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재료 (소재, 발음, 어휘, 문법)),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1. 지도, 평가)	중학교: 별표 1- 기본 어휘표, 별표2- 문법 (학년별)
제6차 (교육부, 1992a, 1992b)	중/고1: 1. 성격, 2. 목표 (전체목표만 제시), 3. 내용 (가. 내용 체계 (언어기능, 의사소통기능, 언어재료), 나. 학년별 내용((1) 언어기능-이해기능, 표현기능, (2) 의사소통 기능, (3) 언어 재료-소재, 발음,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 4. 방법 (가. 교수 학습 계획, 나. 교수 학습 방법, 다. 지도상의 유의점), 5. 평가 (가. 평가 지침, 나. 평가 목표-학년별, 다. 평가 방법, 라. 평가 결과 처리 및 활용)	중/고1: 별표 1-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 별표2- 기본어휘표
제7차 (교육부, 1997a, 1997b)	초중등: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계 (언어기능, 의사소통 활동, 언어재료 (소재, 문화, 언어, 어휘, 단일 문장의 길이), 나. 단계별 내용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 교수 학습 방법 (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5. 평가 (가.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나.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초중고1 : 별표 1-소재, 별표2-의사소통과 예시문, 별표3-어휘관련 규칙 및 어휘표, 별표 4-의사 소통에 필요한 언어 형식
2007 (교육인적자원부, 2007a, 20076b)	초중등: 1. 성격, 2. 목표 (초등 목표, 중등 목표), 3. 내용 (가. 내용 체계 (언어기능, 의사소통기능, 언어재료), 나. 성취 기준 (학년별-초3에서 고1까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별 기준), 라. 교수학습 방법 ((1) 초등학교, (2)	제7차 교육과정과 같은 별표 4개

	중등학교)), 마. 평가 ((1) 평가 지침, (2) 평가상의 유의점-초등학교, 중등학교))	
2011 (교육과학기술기 술부, 2011a, 2011b)	<p>초중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구하는 인간상,</li> <li>2. 초/중학교 교육목표,</li> <li>3. 목표,</li> <li>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가. 내용 체계 (언어기능, 의사소통 활동, 언어재료), 나. 학년군 성취기준),</li> <li>5. 교수 학습 방법 (가. 교수학습 계획 (방향, 단계, 유의점), 나. 교수학습 방법 (선정방향, 방법(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운영상의 문제점), 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방향, 활용방법 및 활용상의 유의점),</li> <li>6. 평가 (가. 평가 계획 (방향, 방법, 유의점), 나. 평가 목표와 내용 (목표수립과 내용 선정의 방향, 유의점), 다. 평가 방법 (선정의 방향, 방법 및 절차, 유의점), 라. 평가의 활용 (방향, 방법, 유의점). 마. 언어 기능별 평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언어 기능 통합 평가 (방법, 유의점)</li> </ol>	<p>초중학: 제7차 교육과정과 같은 별표 4개 부록: 학습 내용 성취 기준의 활용 활동의 예 (학년군별)</p>

교육과정의 틀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기본 틀은 갖추어졌으며, 회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확대 발전해왔다. 교수요목에서부터 도입된 목표, 교수 방법, 지도상의 유의점 등은 이후 모든 교육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유지가 되었다. 기본 구조인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등은 제3차 교육과정까지 계속되었고,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평가가 도입된다.

제3차 교육과정은 영어과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중요한 두 가지 변화를 도입하는데, 이것은 이후 교육과정의 준거가 되기도 한다. 첫째는 중학교의 각 학년별로 가르칠 문형과 문법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예문과 함께 제시한 점이다. 둘째는 처음으로 어휘표가 별표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형/문법도 별표로 첨부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내용(what)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평가에 관한 내용이 첨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평가 항목은 이후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2011 교육과정에 와서는 평가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제시된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이 별표로 도입되고, 문형/문법의 별표는 배제된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이 구조적(문법적) 교수요목을 채택한데 비해, 제6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의사소통기능적 교수요목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문법 항목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언어형식”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여 별표에 추가되고 이후는 어휘표,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 언어 형식이라는 3개의 별표가 고정적으로 첨부된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은 심화-보충형, 단계형 교육과정이므로, 학습 내용 중에 일반 과정의 내용에도 심화과정의 내용을 추가한 것이 특징적이다.

들의 발전으로 본다면 2011년의 교육과정이 가장 복잡하면서 제대로 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여서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재의 개발 및 교수 행위에 상당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 학년군 성취기준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별로 제시함으로써, 교수 학습과 평가의 실질적인 지침이 되도록 하였다.

### 3.1.2 영어 교과목의 변천

중학교는 영어과 교과목이 “영어” 뿐이지만, 고등학교는 표3에서 보듯이 복수였고, 과목명도 변화가 있었다.

표 3. 영어교과목의 변천표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영어 교과목	비고
제1차	영어	
제2차	영어 I (필수), 영어 II (선택)	2-3 학년 교재는 IIA, IIB로 구분
제3차	영어 I (필수), 영어 II (선택)	2-3 학년 교재는 IIA, IIB로 구분
제4차	영어 I (필수), 영어 II (선택)	2-3 학년 교재는 IIA, IIB로 구분
제5차	영어 I (필수), 영어 II (선택)	2-3 학년 교재는 IIA, IIB로 구분
제6차	공통영어(필수), 영어 I, 영어 II, 영어 독해, 영어회화, 실무영어	2학년에 영어 I, 3학년에 영어 II.
제7차	영어 (필수), 영어 I, 영어 II, 영어독해, 영어회화, 영어작문	2학년에 영어 I, 3학년에 영어 II.
2007	영어 (필수), 영어 I, 영어 II, 실용영어 회화, 심화영어 회화, 독해와 작문, 심화독해와 작문	2학년에 영어 I, 3학년에 영어 II.
2011	기초영어, 실용영어 I, 실용영어 II, 실용영어 회화, 실용독해와 작문, 영어 I, 영어 II,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심화영어, 심화영어회화 I, 심화영어회화 II, 심화영어독해 I, 심화영어독해 II, 심화영어작문	전 과목이 선택 교과임. 학 교과목을 한 학기에 마침.

영어과 교과목은 중학교까지는 하나의 과목으로 계속되었지만, 고등학교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영어가 선택교과로 분류되는데, 제2차에서 제5차까지 23년간은 같은 모양으로 영어 I이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목으로, 영어 II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교과목으로 고정되었다. 그러다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고등학교 영어 교과목은 6과목으로 늘어나고, 이후 7과목 (2007 교육과정), 15과목(2011 교육과정)으로 폭증한다. 이렇게 교과목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영어교육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증적 데이터가 없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없다.



3.1.3 영어과 어휘 부분의 변천

영어 교과목이 차츰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어과의 어휘는 오히려 줄어들어왔다. 표4는 교육과정별로 제시한 영어 어휘이다.

표 4. 영어 교과 어휘 변천표

교육과정기	어휘
제1차	중: 1학년: 400 2학년: 500 3학년: 600 총계: 1,500 고: 1학년: 700 2학년: 900 3학년: 900 총계: 4,000
제2차	중: 1학년: 300~400 (기준: 350) 2학년: 350~450 (기준: 400) 3학년: 400~600 (기준: 500) 총계: 1,050~1,450 (기준: 1250) 고: 영어I: 1,800~2500 (기준: 2100) 영어II: 2,300~2,900 (기준: 2,600)
제3차	중: 1학년: 300~350 2학년: 350~400 3학년: 400~450 총계: 1,050 ~ 1,200 고: 영어I: 2,000 영어II: 3,200
제4차	중: 1학년: 300 2학년: 350 3학년: 400 총계: 1,050
제5차	중: 1학년: 300 내외 2학년: 350 내외 3학년: 400 내외 총계: 1,050 내외* * 내외: ±10%를 의미 고: 영어I: 1,700 내외 영어II: 3,000 내외
제6차	초: 3~4학년: 각각 100 5~6학년: 각각 150 총계: 500 중: 1학년: 300 내외 2학년: 350 내외 3학년: 400 내외 총계: 1,050 내외* (기본어휘표의 995 단어중 600~700개 사용 권장) 고: 공통영어: 1,400 영어I: 2,200 영어II: 3,000 영어독해: 1,600 영어회화: 1,500 실무영어: 1,800
제7차	초: 3~4학년: 각각 80~120 5~6학년: 각각 90~130 중: 1학년: +200 내외 2학년: +250 내외 3학년: +350 내외 총계: +800 내외(신출어) (초등에 추가하여 사용하는 신출어를 말함) 고: 고등영어: +450 영어I: 2,300 내외 영어II: 3,000 내외 영어독해: 2,000 내외 영어회화: 1200 내외 영어작문: 1200 내외
2007	초: 3학년: 110 이내, 4학년: 120 이내, 5학년: 130 이내, 6학년 140 이내 (누계 500 이내) 중: 1학년: 170 이내, 2학년: 280 이내, 3학년: 390 이내 고1: 450 이내 (누계: 1,290 이내) 총계: 1,790 이내
2011	초: 3~4학년군: 240 내외, 5-6학년군: 260 내외 (누계 500 내외) 중: 1-3학년군: 750 내외 (총계 1,250 내외) 고: 기초 영어: 1,300 이내, 실용 영어 I: 1,500 이내, 실용영어 회화: 1,200 이내, 실용 영어 독해와 작문: 1,800 이내, 실용 영어 II: 2,000 이내, 영어 I: 1,800 이내, 영어 회화: 1,500 이내, 영어 독해와 작문: 2,200 이내, 영어 II: 2,500 이내, 심화 영어: 2,800 이내, 심화 영어 회화 I: 1,800 이내, 심화 영어 회화 II: 2,000 이내, 심화 영어 독해 I: 3,300 이내, 심화 영어 독해 II: 3,300 이내, 심화 영어 작문: 2,300 이내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1,500 단어를 학습하게 되어 있었다. 이후 이 숫자는 교육과정이 개선될 때 마다 조금씩 줄어들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영어가 도입되면서, 초등학교 4년간에 500단어 정도를 배우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까지 800단어를 신출어로 더하여, 1,300단어를 학습하게 한 것이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1,500단어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수이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고교 졸업까지 4,000 단어를 학습하게 하였으나, 차츰 줄어서 3,000 단어로 되었다. 그러다가 2011년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같은 특수 목적 학교를 염두에 둔 “심화 영어 독해 II”에서 3,300 단어로 늘린 것이 그나마 조금 늘어난 것이다.

어휘의 감소는 학습자의 부담을 줄인다는 정신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휘의 감소가 바로 학습량의 감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좋은 교재와 좋은 교수법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풍부한 어휘로 영어 능력을 더 높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3.1.4 영어과 문법 부분의 변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교육과정에 문법 사항이 처음 도입된 것은 제3차 교육과정이다. 제3차 교육과정에 도입된 문법, 문법은 중학교의 각 학년별로 제시되었는데, 상당히 구체적이고 소위 학교문법(school grammar)에 충실한 내용이다. 표5는 제3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가르칠 것을 주문한 문법의 첫 부분이다.

표 5. 영어과 제3차 교육과정의 문법 항목 일부

<p>(다) 문형                  ① 문형의 표시                  ㉔ 주어+동사×(부사구)                  birds sing.                  He goes to school.                  ㉕ 주어+be×보어                  Tom is a student.                  Tom is tall.                  Who is he?                  ㉖ 주어+be×부사(또는 부사구)                  Tom is there.                  The book is on the desk.                  ㉗ 주어+동사×목적어                  I like Tom                  ㉘ There+be×주어×(부사구)</p>	<p>㉙ 서술문                  ㄱ. 긍정문                  ㄴ. no, not를 사용하는 부정문                  ㉚ 의문문                  ㄱ. am, are, is, do, does, can 으로 시작되는 의문문                  ㄴ. who, whose, whom, what, where, when, how 로 시작되는 의문문                  ㄷ. or 를 포함한 의문문                  ㄹ. 다음의 부가 의문문                  aren't you?                  can't you?                  don't you?                  isn't it?                  ㉛ 명령문</p>
---	---

There is a book on the desk ㉞ Here×be+주어 Here is book. ㉟ 주어+동사×간접 목적어×직접 목적어 He gave me a book.  (라) 문법 사항 ① 문장의 종류	ㄱ. Be 동사 이외의 동사로 시작되는 명령문 ㄴ. please, Don't 로 시작되는 명령문 ㄷ. Let's 로 시작되는 명령문 ㉞ 감탄문 ㄱ. What, How 로 시작되는 감탄문 ㄴ. Ah, Oh 등 감탄사로 시작되는 감탄문
--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중학교 1학년에서 가르칠 문형은 소위 문장 5형식의 문형중에서 제5형식에 해당하는 문형을 제외한 문형을 가르치게 되어 있고, 문장의 종류로는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을 가르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제시된 문형과 문법은 거의 그대로 제4차, 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제시되었다.

그러다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소위 의사소통기능적 교수요목을 채택하면서, 문형과 문법사항은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으로 사라졌을 뿐, 실제로는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안에 과거의 문형, 문법 사항이 녹아들어가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기능 예시문을 충실히 교과서에 반영하면 과거에 가르쳤던 문법 사항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과거의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용어(예: 주어, 동사, 목적어 등)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문법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다시 문법사항이 명시적으로 부활하는데, 과거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문법”이라고 하지 않고 “언어 형식”이라고 하여서, 필요한 문형구조나 표현을 예문으로 제시하게 된다. 이제는 과거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등과 같이 문법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예시문에서 문장 구조나 표현의 해당 부분을 굵은 글자로 표시하여 그런 문장 구조나 표현이 들어간 문장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 “언어형식”이라는 부분은 별표로 제시되었는데, 이 별표는 이후의 모든 교육과정에서 제시되어 왔다.

### 3.1.5 영어과 교육 목표 부분의 변천

영어과 교육 목표는 제1차 교육과정 이후 크게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좀 더 정교한 표현과 세부적인 목표가 추가되거나 수정되어 왔다. 표6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중학교 영어의 목적과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중학교 영어과의 성격 부분에서 서로 상응하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대비한 것이다.

표 6. 제1차 교육과정의 목적과 제6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영어 성격의 상응 부분 (권오량, 김정렬(2010)에서 변용)

제1차 교육과정 중학교 외국어/영어 목적	제6차 교육과정 중학교 영어과 성격
1. 영어는 국제 연합 구성의 제일 국어로 채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욱이 한국에 있어서 영어가 가진 교양 가치와 실용 가치는 타 외국어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으로 영어과가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외국어과가 되어야 할 것임은 더 설명을 가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 하겠다. 2. 외국 문화와 비교 평가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한국 민족의 전통과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게 하여 민족의식을 앙양하며 독립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3. 언어교육은 모든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선행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4. 현대 영어의 평이하고 비근한 어휘로 구성된 간이한 문형을 체득시키어 기초 영어의 이해력과 발표력을 갖게 한다. 5.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와 자기가 속하는 사회 및 국가 이외에도 언어를 달리하는 민족과 국가가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이해케 하여 국제적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위의 2항의 뒷부분에) ...국제 협조와 국제 정의의 정신을 기른다.	1. 영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양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매우 높다. 앞으로 학생들이 바람직한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2. 영어과는 학생들이 영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외국의 문물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민족 문화를 발전시켜 국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교과이다. 3. 언어교육을 통하여 다른 교과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 학습능력을 배양하는데 역점을 둔다. 4. 중학교의 영어과는 외국어 학습의 초보단계이므로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고, 쉬운 말과 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언어 능력을 기르도록 하며... 5.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배양하며, 나아가 국제적 안목과 협조적인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위의 표에서 보면,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적에 언급된 것들이 38년 후의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영어과의 성격 규정에서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되풀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목표 진술도 그 내용이 크게 변화한 것 같지는 않다. 표7은 각 교육과정이 제시한 영어과의 주요 목표를 요약한 것이다.

표 7. 영어과 주요 목표 변천표

교육과정	영어교과 주요목표
1차	* 영어의 성음, 어휘, 문법, 어태, 서식을 이해 체득시킴 * 사고, 감정, 예의, 풍속, 습관, 역사, 환경, 기타 문물제도의 상이점 이해시킴 * 상이점을 극복하여 자존과 독립, 정의를 이해시킴
2차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배양 * 외국과 외국인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 협력의 태도를 배양 * 우리 문화의 대외적 소개

3차	<p>* 중학교: 영어 사용능력을 길러 이해와 표현 또는 사용의 초보적 기능을 체득하고, 영어 학습을 통하여 세계관의 확립과 자아 인식을 가능케 하며, 영어 사용 국민의 사고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한 우리 문화의 가치 인식과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적 자질을 마련</p>
4차	<p>* 중학교: 영어의 사용 능력을 길러, 영어 상용 국민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                  1) 생활 주변 및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쉬운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 영어 상용 국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고교는 중학과 거의 비슷함)</p>
5차	<p>* 중학교: 쉬운 영어를 이해하고, 생각과 느낌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한다.                  * (학년별 목표가 있음)</p>
6차	<p>* 일반목표는 5차와 비슷                  (가) 일상 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쉬운 말이나 글의 내용을 이해하게 한다.                  (나) 이해한 내용을 토대로 말이나 글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다) 쉬운 말이나 글로 상황에 적합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라) 외국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한다.                  (마) 우리 문화를 말이나 글로 간단히 소개할 수 있다.</p>
7차	<p>* 일반목표는 6차와 비슷 (국민공통기본 영어)                  (가)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게 한다.                  (나)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다)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라)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p>
2007	<p>* 목표를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하여, 제7차와 비슷.                  초등:                  (가) 영어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진다.                  (나) 기초적인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                  (다)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다.                  (라) 영어 학습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를 이해한다.                  중등:                  (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한다.                  (나)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다) 영어로 된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다.                  (라) 영어 학습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한다.</p>
2011	<p>* 목표를 초등과 중학, 고교로 분리함.                  초등:                  (가) 영어에 대한 흥미와 기초적인 영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기른다.                  (나) 일상생활에서 영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영어 학습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라) 영어 학습을 통하여 창의적인 영어 사용을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른다.                  중학:</p>

	(가)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지하고 일상적인 영어 사용에 자신감을 기른다. (나) 친숙하고 일반적인 주제에 관하여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다) 외국의 문화와 정보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라) 영어 학습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른다. 고교: 선택교과목별로 목표가 다름
--	--

위의 목표 진술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목표 진술자의 입장의 변화이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목표 진술은 교사의 시각에서 진술되고 있다. 즉, “-- 능력을 기른다” 라든가, “ -- 할 수 있게 한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은 교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 진술이다. 그러던 것이, 2007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입장에서 본 교육목표를 진술하는데, 예를 들면, 관심을 가진다.” 혹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로 진술하고 있다. 교사 중심 교육에서 학생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반영한 목표 진술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2011년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는 다시 예정의 “--을 기른다”는 식으로 교사 입장으로 되돌아가서 진술하고 있다. “--능력을 기른다”는 말이 교사 중심의 목표 진술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능력을 기른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생 중심의 목표 진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능력을 기른다”는 진술은 교사의 입장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능력을 기른다”는 식의 진술과 “-- 이해한다”라는 진술의 또 다른 차이점은 “능력을 기른다”는 진술은 능력을 얻기 위한 과정을 기술하는 접근법인데 비해 “-- 이해한다”라는 진술은 교육이 끝난 후에 도달한 목표 행동을 진술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목표 도달 시의 행동을 기술하는 접근법은 행동주의 심리학에 기반을 둔 교육목표 진술인데, 교육목표 도달 여부를 평가할 때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처음 언급되었던 초등학교에서의 정의적 목표인 “흥미와 자신감”이라는 목표는 제7차 및 2007 교육과정의 목표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가)항으로 나타나며, 심지어 중학교의 목표에서까지 진술되고 있다. 2011 교육과정의 영어 교육의 목표는 초, 중, 고등학교별로 따로 정하였는데,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진술에서 “흥미와 자신감”이라는 정의적인 목표는 2011 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에서까지도 유지되는데, 2011에서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창의적인 영어 사용”(초등), “창의적인 사고력”(중학) 배양까지를 교육 목표로 잡고 있다. 흥미와 자신감에 대한 정의적 목표가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것처럼, “창의적 사고력”도 영어 교과에서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 이들 목표의 문제점이 있다.

### 3.1.6 영어과 교수 학습 방법 부분의 변천

교육과정은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여왔다.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차츰 상세화, 정교화 되어왔다. 교수요목기에는 “교수 방침”과 “교수사항”에서 방향과 교수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였다. 예를 들어, “독해에는 문학과 어학 양면 지도를 병진하여, 번역, 감상, 비평, 직독, 직해, 문법적 해석 등의 실력을 형성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주 전통적인 교수법의 대강을 보여준다. 제1차 교육과정도 교수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데, 이해력 훈련(귀 훈련(청취력), 눈 훈련(독서)), 발표력 훈련(입 훈련(구술), 손 훈련(기술)) 등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언어 기능별로 구체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진전이 있었고, 제3차 교육과정은 문형, 문법, 어휘표의 도입과 더불어, 지도 내용에서도 각 기능별로 어떤 활동을 통하여 영어를 학습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교육과정의 모형을 되었다. 이때 제시된 기능별 활동은 이후의 교육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1.7 영어 평가 부분의 변천

평가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때는 평가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수준이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b>2) 평 가</b></p> <p>가) 언어 기능의 네 영역을 고루 평가하도록 한다.</p> <p>나) 각 언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형식과 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p> <p>다) 지엽적이고 예외적인 것을 피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한다.</p> <p>라) 평가는 학생의 학습 의욕이 오히려 촉진될 수 있도록 한다.</p> <p>마)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p>
--

이렇게 도입된 평가에 대한 부분은 5차 교육과정에서도 7개 항목으로 늘어났을 뿐, 그 내용이 크게 발전되지는 않았다. 이것은 제6차, 제7차 및 2007 교육과정에서도 별로 변함이 없이 간단히 처리된 부분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1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총론 팀에서 요구한 평가의 항목이 늘어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루게 되었는데, 영어과 교육과정의 평가 부분이 다른 어떤 교과목의 평가 부분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데, 사실상 평가의 거의 모든 지침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2011 영어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평가 부분의 내용 목차이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부분 내용 목차도 동일하다.)

<p><b>6. 평가</b></p> <p>가. 평가의 계획                  (1) 평가 계획의 방향, (2) 평가 계획의 방법, (3) 평가계획상의 유의점</p> <p>나. 평가의 목표와 내용                  (1) 평가 목표 수립과 내용 선정의 방향, (2) 평가 목표 수립과 내용 선정의 방향                  (3) 평가 목표 수립과 내용 선정상의 유의점</p> <p>다. 평가 방법                  (1) 평가 방법 선정의 방향, (2) 평가 방법 및 절차, (3) 평가 방법상의 유의점</p> <p>라. 평가의 활용                  (1) 평가 활용의 방향, (2) 평가 활용의 방법, (3) 평가 활용상의 유의점</p> <p>* 언어 기능별 평가                  듣기 평가 (방향, 방법, 유의점), 말하기 평가 (방향, 방법, 유의점)                  읽기 평가 (방향, 방법, 유의점), 쓰기 평가 (방향, 방법, 유의점)</p> <p>* 언어 기능 통합 평가 (4기능 통합평가 방법, 4기능 통합 평가상의 유의점)</p>
---

위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과 평가의 경우 총론에서 제시한 내용 목차인 (가), (나), (다), (라) 항목 이외에 “언어 기능별 평가” 방법을 제시하였고, “언어 기능 통합 평가” 방법을 추가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하여 활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까지 안내한 것을 볼 수 있다.

### 3.2 제2외국어 교육과정

제2외국어는 거의가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졌다.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교육과정에 도입된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는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던 형식에 따라서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 3.2.1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틀의 변천

제2 외국어는 교수요목기에도 가르쳐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자체의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 본고에서는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2외국어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표8은 각 교육과정기별로 발표된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목차이다.

표 8. 제2외국어과 교육과정 틀의 변천표

교육과정기	교육과정의 주요 목차	비고
제1차 (1955)	독일어: 一. 교육 목적, 二. 교육 목표, 三. 과정 전개의 방침, 四. 지도 내용, 五. 본 과정상의 주의사항. 중국어: 一. 일반 목적, 二. 교육 목표, 三. 과정 전개의 방침, 四. 학년별 지도 요령	



제2차 (1963)	독일어: 1. 지도 목표, 2. 지도 내용 ((1) 문자, (2) 용어, (3) 문법, (4) 독해, (5) 청취, (6) 발표), 3. 지도상의 유의점 프랑스어: 1. 지도 목표, 2. 지도 내용 ((1) 용어, (2) 문법, (3) 독해, (4) 청취, (5) 발표), 3. 지도상의 유의점 중국어: 1. 지도 목표 ((1) 중국어 교육의 의의, (2) 중국어 교육의 목표), 2. 지도 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3. 지도상의 유의점 ((1) 전반적 유의점, (2) 개별적 유의점)	
제3차 (1973)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에스파니아어, 일본어: 1. 목표, 2. 내용 (가. 읽기 (언어재료, 지도사항), 나. 쓰기 (언어재료, 지도사항), 다. 듣기와 말하기 (언어재료, 지도사항)), 3. 지도상의 유의점	
제4차 (1981)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중국어, 일본어: 가. 목표, 나. 내용 ((1) 언어 기능 (가. 듣기와 말하기, 나. 읽기, 다. 쓰기), (2) 언어재료 ((가) 언어재료, (나) 발음, (다) 어휘, (라) 문법, 문법),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1) 지도, (2) 평가)	각 언어별 별표1: 어휘표
제5차 (1987)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중국어, 일본어: 제4차 교육과정과 기본적으로 목차 및 내용들이 같음	각 언어별 별표1: 어휘표
제6차 (1992)	독일어 I, II, 프랑스어 I, II, 에스파니아어 I, II, 중국어 I, II, 일본어 I, II, 러시아어 I, II: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언어 기능 ((1) 이해기능, (2) 표현기능)), 나. 의사소통 기능, 다. 언어재료 ((1) 소재, (2) 발음, (3) 어휘), 4. 방법 (가. 교수 학습 계획, 나. 교수 학습 방법), 5. 평가 (가. 평가 지침, 나. 평가 목표 ((1) 언어 기능 (가) 이해기능, (나) 표현기능, (2) 의사소통 기능), 다. 평가 방법	별표1: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별표2: 어휘표
제7차 (1997)	독일어 I, II, 프랑스어 I, II, 스페인어 I, II, 중국어 I, II, 일본어 I, II, 러시아어 I, II: 아랍어 I, II: 1. 성격, 2. 목표, 3. 내용 (가. 의사소통 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나. 언어 재료 ((1) 발음, (2) 어휘, (3) 문법 (다루지 않는 문법사항), (4) 문화/의사소통기능 예시문), 4. 교수 학습 방법, 5. 평가 (가. 평가 지침, 평가 내용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다. 평가 방법	별표1: 의사소통기능 예시문, 별표2: 어휘표
2007	기본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과 같음	
2011	2007 교육과정에 베트남어 추가. 교과목은 더 늘어남. 1. 목표 (가. 언어기능, 나. 문화, 다. 태도), 2. 성취 기준 (가. 언어적 내용, 나. 문화적 내용) 3. 교수-학습 방법 (가. 일반 지침, 나. 언어 기능, 다. 언어 재료, 라. 문화), 4. 평가 (가. 평가 지침, 나. 평가 방법)	별표1-의사소통 기본표현, 별표2- 기본 어휘표

교육과정의 틀은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제2외국어끼리 공통의 목차를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은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제3차 교육과정부터는 상당히 통일된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영어의 경우는 제3차 교육과정에서 별표로 어휘표가 도입되는데, 제2외국어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어휘표가 도입된다. 그리고 영어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평가상의 유의점이 도입되고 있다. 제4차 교육과정의 목차 및 형식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거의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한편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에서와 같이 의사소통 기능 및 예시문이 별표로 도입된다. 이것은 제2외국어 교육과정의 개발이 당시 외국어 교육학회의 임원들을 주축으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영어교육 전공자들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형식이 별표로 제공되지만 (고1까지 적용), 제2외국어는 언어형식이 별표로 제공되지 않는데, 이것은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2007 교육과정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체제와 같고, 2011에서는 목표 진술도 언어 기능별 목표, 문화적 목표, 태도상의 목표가 제시된 점이 색다르고,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이런 부분을 나누어 다루고 있는 것이 새롭다.

### 3.2.2 제2외국어 교과목의 변천

제2외국어 교과목은 교수요목기 시절부터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으로 들어왔다. 교수요목기의 교육과정에 들어있던 러시아어는, 국제 정치 및 냉전시대의 영향인지 제1차 교육과정에서 배제된 후, 제5차 교육과정에서 부활할 때까지 오랜 기간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교과목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스페인어는 제3차 교육과정에 처음 도입되어서, 그 이름이 “에스파니아어”(3차, 4차) --> “에스파냐어”(5차, 6차) --> “스페인어”(7차 이후)로 변경되었다.

아랍어는 제7차 교육과정에 도입된 이후 계속되고 있으며, 베트남어가 2011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표9는 제2외국어 교과목의 변천을 보여준다.

표 9. 제2외국어 교과목 변천표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과목	비고
제1차	독일어, 중국어	
제2차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제3차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에스파니아어, 일본어	
제4차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중국어, 일본어	
제5차	독일어 I, II, 프랑스어 I, II, 에스파냐어 I, II, 중국어 I, II, 일본어 I, II, 러시아어 I, II	
제6차	독일어 I, II, 프랑스어 I, II, 에스파냐어 I, II, 중국어 I, II, 일본어 I, II, 러시아어 I, II	
제7차	독일어 I, II, 프랑스어 I, II, 스페인어 I, II, 중국어 I, II, 일본어 I, II, 러시아어 I, II, 아랍어 I, II	
2007	제7차 교육과정과 같음	
2011	제7차 및 2007 교육과정의 제2외국어 교과목에 베트남어 I, II 추가 하여 일반 과목군으로 분류. 심화 과목군으로는 각 언어별로, 00 회화 I, II, 00 독해 I, II, 00 작문, 00권 문화 과목이 개설됨	

3.2.3 제2외국어 교과 어휘 부분의 변천

제2외국어의 어휘는 비록 고등학교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것이어서 많은 단어를 배우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어의 어휘보다는 많이 적은 편이다. 초기에는 1,500 단어 정도로 시작하였는데, 차츰 학습 어휘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교육부의 학습부담 경감의 정책 결과인데, 초기의 어휘에 비하면 어휘 학습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4차 교육과정 이후, 별표에 주어진 기본 어휘 중에서 얼마간을 필수로 이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표10은 제2외국어 교과목에 사용된 어휘의 변천을 보여준다.

표 10. 제2외국어 교과목 어휘 변천표

교육과정기	어휘
제1차	독일어: 800 이내, 중국어: 제1학년: 단자 500자 내외, 어휘 700-800어
제2차	독일어: 1,500어 (전문적 기술적 용어로 부득이한 경우 100~200 추가) 프랑스어: 1,500 내외 (전문적 기술적 용어로 부득이한 경우 100~200 추가) 중국어: 단자 800자 내외, 어휘 1,000~1,300어 정도
제3차	독일어: 1,500 낱말 (전문적 어휘 피할 것) 프랑스어: 1,500 내외 (전문적, 기술적 용어로 필요하면 100~200어 추가) 중국어: 3,000어 내외 에스파니아어: 1,500 내외 (전문적, 기술적 용어로 필요하면 100~200어 추가) 일본어: 3,000어 내외 (전문적, 기술적 용어 포함 200 추가 가능)
제4차	독일어: 1,200 내외 (별표의 752개 필수 이수) 프랑스어: 1,200 내외 (별표의 742개 필수 이수) 에스파니아어: 1,200 내외 (별표의 736개 필수 이수) 중국어: 2,000어 내외 (기본 어휘 포함) 일본어: 2,200 내외 (기본 어휘 포함)
제5차	독일어: 1,000 내외 (별표의 675개 필수 이수) 프랑스어: 1,000 내외 (별표의 663개 필수 이수) 에스파냐어: 1,000 내외 (별표의 675개 필수 이수) 중국어: 1,800 내외 (별표의 760개 필수 이수) 일본어: 1,800 내외 (별표의 846개 (46개 조사, 조동사 포함) 필수 이수)
제6차	독일어 I: 500, 독일어 II: 1,000 내외 (별표의 695개 필수 이수) 프랑스어 I: 500, 프랑스어 II: 1,000 내외 (별표의 704개 필수 이수) 에스파냐어 I: 500, 에스파냐어 II: 1,000 내외 (별표의 683개 필수 이수) 중국어 I: 600, 중국어 II: 1,300 내외 (별표의 760개 필수 이수) 일본어 I: 600, 일본어 II: 1,400 내외 (별표의 771개 필수 이수) 러시아어 I: 500, 러시아어 II: 1,000 내외 (별표의 788개 필수 권장)
제7차	독일어 I: 500 낱말 내외, 독일어 II: 800 낱말 내외 프랑스어 I: 400 낱말 내외, 프랑스어 II: 800 낱말 내외 스페인어 I: 500 낱말 내외, 스페인어 II: 800 낱말 내외 중국어 I: 400 낱말 내외, 중국어 II: 800 낱말 내외

	일본어 I: 500 낱말 내외, 일본어 II: 900 낱말 내외 러시아어 I: 400 낱말 내외, 러시아어 II: 800 낱말 내외 아랍어 I: 400 낱말 내외, 아랍어 II: 800 낱말 내외
2007	제7차 교육과정과 어휘가 같음. 다만 프랑스어 I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400낱말이었으나, 2007 교육과정에서 500으로 늘어남
2011	2007 교육과정과 어휘가 같음. 다만 일본어 II는 800낱말로 줄었고, 베트남어 I: 400 낱말 내외, 베트남어 II: 800 낱말 내외가 추가됨

### 3.2.4 제2외국어 문법 부분의 변천

제2외국어의 교육과정에 문법 사항은 별로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제1차 교육과정의 경우, 독일어에서는 1학년에서 초보적인 문법(명사와 관사, 소유 대명사, 형용사, 등 부가어의 전형적인 격변화, 동사의 직설법의 여러 변화 및 그 밖에 다른 품사를 가운데서 기본적인 것들의 전형적인 용법)을 제시하고 있고, 2학년, 3학년에서는 전학년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 기초적 문법사항들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중국어에서도 문장론 중심으로 하고, 제2학년부턴 “단구 조직, 성분, 위(位, Case) 중심으로 조사의 기본 용법, 복구 조직, 제3학년에서 응용 문법으로 생략, 전도 표점부호(標點符號) 등과 조사의 특수 용법, 고문의 유형, 허사 등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에 오면, 문법 부분은 더 추상적으로 되면서, 독일어와 프랑스어는 공통의 틀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문법의 지도는 독일어/프랑스어의 이해력과 발표력을 뒷받침하는 한도에서 지도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예문의 이해와 간단한 발표를 위한 문법 사항으로 그치고, 비현실적, 비실용적, 형식 문법은 제외하되, 각종 품사의 용법의 개략과 기본된 문형과 문장의 종류 등 필요 불가결한 요소는 망라하여야 한다.

중국어의 경우는, 제2단계(2학년)에서 (1) 중국어의 특성, (2) 문의 성분과 단문(單文) 조직, (3) 복문의 조직, (4) 조사의 기본 용법을 제시하고, 제3단계(3학년)에서 응용문법으로 제1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하였던 “생략, 전도, 표점 부호, 조사의 특수 용법, 고문의 유형 및 허사를 보충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가 같은 틀에 맞추어 언어 재료 부분에서 “문형은 현대 표준적 독일어/프랑스어/에스파니아어를 구성하는 것 가운데서 선정하되 그 구조가 평이한 것에 한한다.”로 제시하고 있고, 중국어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과 비슷하게 (가) 중국어의 특질, (나) 단어와 구의 용법, (다) 성분의 배열, (라) 단문과 복문의 구조, (마) 조사 용법을 제시한다. 처음 도입되는 일본어는 문법 사항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였는데, 동사의 활용, 형용사 및 형용동사의 활용, 명사와 대명사, 조사, 조동사, 부사, 연체사, 접속사, 감동사, 경어 등의 용법과 활

용을 제시하였고, 음편을 추가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문법에 대한 진술이 더 간단하고 기본적으로 되는데,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중국어, 일본어 등, 모든 제2외국어가 간단히 “문형 문법 사항은 사용 빈도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기초적인 것으로 한다”고만 제시하고 있다. 제5차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제4차 교육과정의 문법 사항과 같으나, 다만 이번에는 문법 사항 중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적시하는 언어가 있다. 즉,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등이, “문형 문법 사항은 사용 빈도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가르치되, 문법 사항 중 다음과 같은 것은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여 다루지 않은 문법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 오면,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기능이 새로 도입되면서, 명시적인 문법 항목은 아예 나타나지 않게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에 녹아들어가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문법 항목이 나타나지만, 이것도 제5차 교육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기능 예시문에 담긴 문법 사항을 참조하게 하든지, 다루지 않은 문법 사항을 적시하는 형태로 되었다. 이와 같은 형식은 2007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2011 교육과정도 언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 3.2.5 제2외국어 교육 목표 부분의 변천

제2외국어의 교육 목표는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독일어 교육목표와 중국어 교육목표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되었다. 독일어 목표는 언어 능력 습득과 문화이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중국어는 지식내용까지를 목표에 포함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다. 아마도 중국어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목표와 교육내용을 혼동한 듯하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같은 틀로 목표를 제시하고, 중국어는 제1차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같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외국어로서의 일반 목표 아래, 각 언어별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모든 외국어가 하나의 공통된 틀 안에서 언어/나라 이름만 바꾸어서 대입하여 목표를 제시하는 통일성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통일성은 제4차, 5차, 6차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대강의 틀은 유지한 채 각 언어별로 조금씩 다르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07 교육과정은 각 언어의 교과목 별로, 언어 기능 목표, 문화 목표, 태도 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틀은 2011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표11은 제2외국어 교과목들의 주요 목표의 변천사이다.

표11. 제2외국어 교과목들의 주요 목표의 변천사

교육과정	제2외국어 주요 목표
1차	<p>독일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적인 현대 독일어의 평이한 재료로 구성된 글이나 말을 이해하는 힘과 간단한 발표의 힘을 기른다.</li> <li>독일어를 상용어로 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풍속, 습관, 및 그 생각 방법, 사상, 감정, 문화 그리고 그들의 민주주의와 국제 평화에 관한 정신을 이해시킨다.</li> <li>독일어와 우리말의 차이, 그리고 독일어를 상용어로 쓰는 사람들의 생활 및 문화와 우리의 그것들과의 차이를 이해 체득시킨다.</li> <li>3항에 말한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함이 공통의 의무이며 어디에서나 정의가 인류 생활의 기본 원칙임을 체득시킨다.</li> </ol> <p>중국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학교육의 목표: 가. 중국어의 표준어 해독(회화, 해독, 문법 및 작문, 문자 및 발음부호), 나. 고대 백화 및 문언 지도</li> <li>어학교육에 병행시킬 지식 내용: 가. 현대 중국 이해 (생활양식, 풍속, 습관, 간단한 역사, 지리, 현대의 문인과 그 작품), 나. 역사상의 중국의 특이성(명물, 고사, 특출한 인물의 소개, 한-중 문화교류의 일화, 고전 문학의 편모)</li> </ol>
2차	<p>외국어 일반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을 기른다.</li> <li>외국어의 기본적인 어법을 습득시켜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른다.</li> <li>우리나라의 문화를 외국어를 통하여 소개하는 기초적 능력을 기른다.</li> <li>외국어의 학습을 통하여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제적 협조심과 사물에 대한 견식과 판단력을 심화 확장한다.</li> </ol> <p>독일어, 프랑스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적인 현대 독일어/프랑스어의 평이한 내용으로 된 문장이나, 말을 이해하는 힘과 간단한 발표력을 기른다.</li> <li>독일어/프랑스어를 상용어로 쓰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풍속, 습관, 그들의 감정, 사고방식, 문화 등에 관한 개략적인 이해를 가지게 한다.</li> <li>우리와 독일어/프랑스어를 상용어로 쓰는 사람들의 생활 및 문화의 차이와 특색을 비교 이해하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각을 더욱 굳게 한다.</li> <li>우리 고유의 생활양식, 미풍양속, 전통, 문화 등을 독일어/프랑스어를 상용어로 쓰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적 힘을 기른다.</li> </ol> <p>중국어: 제1차 교육과정의 목표와 같음</p>
3차	<p>외국어 일반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어의 기본 어법을 습득시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종합적인 어학 기능을 기른다.</li> <li>외국어의 학습을 통하여 외국과 외국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제적 협조심을 기르고, 사물에 대한 견식을 넓혀 우리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li> <li>외국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기른다.</li> </ol> <p>각 언어별 목표:</p> <p>가. 표준적인 현대 00어의 기본 어법을 익히게 하여,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기초적인 기능을 기른다.</p>

	<p>나. 00인의 생활과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국제적 협조심과 안목을 기르고, 우리 스스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p> <p>다. 00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와 현황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기른다.</p>
4차	<p>외국어과 교과 목표: 외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p> <p>1) 생활 주변 및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외국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p> <p>2) 외국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게 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넓힌다.</p> <p>언어별 목표: 00어 사용 능력을 기르고, 00인의 문화를 이해시킴으로써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1) 일상생활과 전반적인 화제에 관한 비교적 쉬운 말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능력을 기른다.</p> <p>2) 00인의 생활 및 문화에 관하여 폭넓게 이해한다.</p>
5차	<p>외국어과 교과목표: 외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한다.</p> <p>1)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소재에 관한 외국어를 이해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p> <p>2) 외국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여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게 한다.</p> <p>언어별 목표:</p> <p>1) 일상생활 및 주변의 일반적인 화제에 관한 쉬운 말을 들어 이해하고,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한다.</p> <p>2) 일상생활 및 주변의 일반적인 소재에 관한 쉬운 글을 읽어 이해하고 쓸 수 있게 한다.</p> <p>3) 00어 상용 국민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폭넓게 이해시킨다.</p>
6차	<p>외국어 목표: 외국어를 이해하고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며, 이를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한다.</p> <p>가.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대한 말이나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p> <p>나. 외국어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p> <p>다.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바르게 수용하며, 우리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쉬운 말이나 글로 소개할 수 있게 한다.</p> <p>00어 I 목표:</p> <p>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쉬운 말과 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p> <p>나. 일상적인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p> <p>다. 00어 상용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습을 이해하게 한다.</p> <p>00어 II 목표:</p> <p>가. 일반적인 화제와 관련된 말과 글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p> <p>나. 일반적인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p> <p>다. 00어 상용 국민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한다.</p>
7차	<p>제2외국어 목표: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말과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목표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진다.</p> <p>가. 외국어로 일상생활에 관해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다.</p> <p>나. 외국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p> <p>다. 외국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한다.</p> <p>독일어 I 목표 (대표): 쉬운 독일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의사소</p>

	<p>통 능력을 기르며, 독일어권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진다.</p> <p>가.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나. 간단한 말을 표현한다.                  다. 쉽고 간단한 글을 이해한다.                  라. 쉽고 간단한 글을 쓴다.                  마. 독일어로 의사소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바. 독일어권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지니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p> <p>독일어 II 목표 (대표): 비교적 쉬운 독일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며, 독일어권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진다.</p> <p>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                  나. 일상적인 내용을 간단한 말로 표현한다.                  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쉽고 간단한 글을 읽고 이해한다.                  라. 일상적인 내용을 쉽고 간단한 글로 표현한다.                  마. 독일어로 의사소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바. 독일어권의 일상생활과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지니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p>
2007	<p>제2외국어 목표: 외국어의 기초적인 표현들을 익혀 활용할 수 있으며, 목표 언어권의 일상생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다.</p> <p>가. 일상생활에 관한 말이나 대화를 듣고 이해한다.                  나. 간단한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한다.                  다. 일상생활에 관한 글을 읽고 상황 및 주제를 파악한다.                  라. 일상생활에 관한 쉬운 내용을 글로 표현한다.                  마. 목표 언어권 문화의 특성에 주목하여 일상생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바.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가진다.</p> <p>독일어 I 목표 (대표): 독일어의 기초적인 표현들을 익혀 활용할 수 있으며, 독일어권의 일상생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다. 가. 언어 기능별 목표, 나. 문화 목표, 다. 태도 목표</p>
2011	<p>제2외국어에 공통되는 목표는 없고, 고등학교 교육목표로 대신함.</p> <p>각 언어별 교과목별 목표: 각 언어의 여러 교과목 별로 따로 목표 설정함. 목표의 내용에는 언어 기능(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별 목표, 문화 목표, 태도 목표가 제시됨</p>

앞의 영어과 교육목표의 변천의 논의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제2외국어의 목표 진술 방식도 그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 즉 제6차 교육과정까지의 목표는 “-- 능력을 기른다”라든가, “--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여 교사 입장에서의 목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듣고 이해한다” 혹은 “자신감을 가진다”라는 식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목표 진술을 하고 있다.

### 3.2.6 제2외국어 교수 학습 방법 부분의 변천

제2외국어 교육과정에서의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기술도 영어과 교육과정과 비슷한



발전을 해왔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00어 과정 전개의 방침”이라는 제목으로 네 기능 균형발전, 언어적 및 문화적 흥미 자극 등에 대하여 아주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제2차 교육과정에서도 영어과는 언어 기능별로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2외국어는 문자, 용어, 문법, 독해, 청취, 발표 등으로 나누어 간단한 지침을 제시하는 정도이다. 제3차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비로소 제2외국어에서도 각 기능별로 언어재료와 지도사항을 명시하면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지침이 보다 자세히 정착되었고, 이후 차츰 발전을 하였다.

### 3.2.7 제2외국어 평가 부분의 변천

영어과와 마찬가지로 평가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때는 평가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수준이었는데, 그 내용은 앞의 영어과의 평가 부분에서 소개한 것과 같다. 제2외국어의 평가 부분은 영어과의 평가 부분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을 해왔다. 2011 교육과정에서는 총론 개발진에서 요구한 틀에 맞추어 상세한 평가 지침을 제시하였으나 영어과의 지침만큼 구체적이지는 않다.

## 4. 현행 외국어 교육과정의 특성 및 발전 방향

이제까지 외국어 교육과정의 변천사를 교육과정의 체제, 개설 교과목의 종류, 어휘, 문법, 교육 목표, 교수-학습 방법, 평가라는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런 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현행 외국어 교육과정의 특성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잠시 논의를 하고자 한다.

### 4.1. 현행 외국어 교육과정의 특성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 과정의 체제는 정교화 되어 왔고, 교과목 수는 늘었으나, 학습 어휘는 줄어 왔고, 문법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배제되었다가,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형태를 달리하여 부활하였다. 교육 목표는 전반적으로는 정교화 한 면이 있으나, 그 기본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수-학습 방법 부분은 차수를 거듭하면서 언어 기능 중심으로 지도 방법을 제시하는 접근법으로 발전하여 왔는데, 2011 교육과정에 오면 그 내용이 언어기능 부분에서의 목표 제시와 별도로 절차적인 체제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평가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나, 그 내용이 미미한 편이었는데, 2011년의 교육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변천과 발전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된 2011 교육과정의 성격과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 4.1.1 교과목 수의 증가

2011 교육과정에서 종래의 교육과정에서 볼 수 없던 가장 큰 변화는 고등학교의 교과목 수가 증가한 것이다. 영어의 경우, 중학교까지는 하나의 교과목으로 변화가 없으나, 고등학교에서는 2007 교육과정의 7개 과목에서 2011년에 15개 과목으로 늘어났다. 이중에 심화 영어 교과목 6개는 외국어 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와 같은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염두에 둔 교과목이라고 하나, 이들 6개 교과목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9개 교과목으로 늘어난 것은 많은 증가이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필요하면 심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 많은 교과목이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제2외국어의 경우도, 2007 교육과정에서는 언어별로 2개 교과목이었으나, 2011 교육과정에서는 8개 교과목으로 늘어났다. 이중에 일반 교과목인 00어 I, II를 제외한 6개 과목은 심화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외국어 고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용으로 되어 있으나, 영어과의 문제와 같은 문제가 제2외국어 교과에서도 있을 수 있다.

2007 교육과정까지는 하나의 교과목이 1년짜리 교과목인데 비해, 2011 교육과정에서는 한 학기짜리 교과목이므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두꺼운 책 한권으로 배우던 것을 얇은 책 두 권으로 일 년을 배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목이 지나치게 세분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도 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분된 교과목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나, 2014 혹은 2015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현재 개발중인 국가영어능력시험에서 영어의 경우, 2개의 수준으로 시험을 나누어서 시행하게 될 예정인데, 이렇게 교과목이 늘어나면서, 어떤 교과목들을 어떤 수준의 시험과 연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결정의 이론적 근거가 과연 타당할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증가한 교과목은 교재 개발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제2외국어의 경우, 특정 외국어를 선택하는 고등학교의 수와 학생 수가 대단히 적은 경우, 이들을 위해 국가가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2011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외국어의 교과서는 인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특정 교과목을 위해 개발된 교과서가 없는 경우, 기존에 나와 있는 일반 교과서를 검토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과서로 “인정”해주면 된다고는 하나, 교육과정이 먼저 개발되고 그에 맞게 교과서가 개발되는 것이 순서인데, 이미 나온 교

과서가 이후 개발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에 맞는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많다.

#### 4.1.2 성취 기준 진술에서의 애매성

2011 교육과정은 교과목이 세분되면서 나름대로의 난이도 위계를 설정하려다 보니, 성취기준의 진술에서 애매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소재의 난이도의 위계를 결정하는 표현들을 조금씩 달리 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가 애매해지는 것이다. 표12는 영어과의 경우, 일부 교과목의 소재 진술에 사용된 난이도의 위계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표 12. 학교급별, 수준별 영어과 성취기준 진술에 사용된 표현들

교과목	성취기준의 위계를 나타내는 표현들
초등학교	“일상생활에 관한 간단한” 말이나 대화
중학교	“일상생활이나 친숙한 일반적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
고 실용영어 I	“일상생활의 친숙한 주제나 실용적 내용에 관한” 말이나 글
고 실용영어 II	“일상생활의 다양한 주제나 친숙한 기초 학술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
고 영어 I	“일상생활의 일반적 주제나 친숙한 기초 학술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
고 영어 II	“일상생활의 다양한 주제나 일반적 기초 학술 주제에 관한” 말이나 글

위의 표현들을 보면, 표현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에도 그런 차이를 분별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 표현들을 구안한 연구자들은 나름대로의 원칙과 체계를 갖추고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비슷비슷한 성취기준들 각각을 명확하게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 4.1.3 의사소통기능과 성취기준과의 연계성 부족

제6차 교육과정 이래로, 교육과정에서는 의사소통기능을 별표로 주고, 초등 및 중학에서 가르칠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과서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기능적 교수요목을 선택한 것이 중요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2011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기능들이 연계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론 성취 기준에 나온 행동 용어들을 보면, 그 안에 의사소통기능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이들 기능들이 구현되는 성취기준을 구안해볼 수 있을 것이다.

### 4.2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상의 문제점

교육과정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외국어 교육과정 개발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발 기간, 개발 인력의 측면에서 생각해본다.

#### 4.2.1 개발 기간의 문제

현행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한 문제로는 첫째로 개발 기간이 짧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여건상의 제약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2011 새 교육과정은 영어과의 경우 2년이 걸렸다. 예비 연구에 1년, 실제 개발에 1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 중에 총 15개 교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작업의 양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2년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에 짧은 기간이다. 앞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 아래 충분한 사전 연구를 하고 실제 개발에도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 4.2.2 개발 인력의 전문성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까지는 대학의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개발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원들이 개발 책임자가 되어서 각 언어별로 일부 외부의 교수들과 교사들을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개발해 오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그 기관의 이름처럼 교육과정 연구 기관이므로, 교육과정에 관한 자료와 인력을 많이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연구의 역사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다른 어떤 기관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하는 외부의 교수와 교사들이 과연 교육과정 개발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실제로 과거에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를 하였거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한 사람들이 연구진과 개발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3 외국어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

이런 특성과 문제점을 가진 외국어 교육과정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교과목 수, 성취 기준, 교육과정의 틀, 제2외국어의 수의 측면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4.3.1 교과목의 축소와 재조정

위의 문제점에서 언급하였지만, 현행 교육과정에 의하면 영어와 제2외국어 교과목 수가 너무 많다. 앞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과목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목 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과목을 포

함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 4.3.2 성취 기준 진술에 대한 새 연구

앞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처럼, 성취 기준의 진술에서 소재의 난이도 위계를 표현하는 말들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 표현들은 사실상, 외국의 교육과정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에는 외국의 교육과정들과 유럽에서 개발된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이 참고가 되리라 본다.

#### 4.3.3 외국어 교육과정 틀의 통일화와 개별화

제3차 교육과정 이후 일반적으로 영어과 교육과정은 별도로 개발되었으나 제2외국어 교육과정들은 하나의 틀에 맞추어 언어 이름만 바꾸고 적절한 수정을 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외국어 학습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접근법은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처럼 여러 언어를 아우르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보다 훌륭한 틀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언어 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들 특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4.3.4 제2외국어 수의 확대

현재 교육과정에 포함된 제2외국어는 8개 언어인데, 앞으로 제2외국어 수를 늘리는 문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늘린다면 어느 언어까지 포함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새 언어를 선택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력의 신장과 더불어 세계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2외국어들을 알아야 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정치적, 정책적 결정의 범주에 속할 수도 있으나, 학계에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국어 교과와 교육과정의 변천과 현행 교육과정의 성격 및 개발

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과정은 교수요목기 이래로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현재 상당히 발전되고 정교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2011 교육과정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교육을 위한 가장 원천적이며 기본적인 요건이다. 훌륭한 교육성과를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야 하며, 좋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sup>1)</sup>

---

1) 본 논문은 2013. 4. 30. 투고되었고, 2013. 5. 24.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13. 7. 12. 게재가 확정되었음.

❖ 참고 문헌

- 교육부 (1992a).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 (1992b). 『고등학교 교육과정 (I)』. 서울: 교육부.
- 교육부 (1997a).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 (1997b). 『고등학교 교육과정 (I)』. 서울: 교육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a).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7b). 『고등학교 교육과정 (I)』.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a).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b).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권오량, 김정렬 (2010). 『한국영어교육사』. 서울: 한국문화사.
- 김인석, 김봉규 (2012). 중학교 영어회화수업 강화를 위한 학교 영어교육과정 분석 및 효과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9(4), 425-450.
- 문교부 (1955a). 『중학교 교과과정』. 서울: 문교부.
- 문교부 (1955b).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서울: 문교부.
- 문교부 (1963a).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 문교부 (1963b).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 문교부 (1973).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 문교부 (1974).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 문교부 (1981).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 문교부 (1987). 『중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 문교부 (1988).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문교부.
- 민찬규 (1999). 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방안 연구. *Foreign Languages Education*, 3(2), 229-252.
- 배두분 (1997). 제7차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의 방향. 『영어교육연구』, 9, 3-28.
- 배두분 (1998). 우리나라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천에 관한 연구.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3(1), 223-239.
- 이화자 (1998). 영어과 교육과정의 기본어휘 선정을 위한 제안.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3(2), 5-24.
- Brown, J. D. (1995). *The elements of language curriculum*. Boston, MS: Heinle & Heinle.

- Candlin, C., & Murphy, D. (1987). *Language learning task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hang, K., Hayes, D., Kim, M., & Lee, B. (2011). Curriculum and materials development for teaching English to young learners revisited. 『영어교과교육』, 10(3), 21-50.
- Khranke, K. (1987) *Approaches to syllabus design for foreign language teaching*.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Inc.
- Kim, J. E. (1997). A study on foreign language curriculums overseas. 『초등영어교육』, 3, 93-108.
- Lee, M. W. (2011). The influence of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um on pre-service English teacher education in Korea. 『영어교과교육』, 10(1), 1-23.
- Long, M., & Crookes, G. (1992). Three approaches to task-based syllabus design. *TESOL Quarterly*, 26(2), 27-56.
- Munby, J. (1978). *Communicative syllabus desig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m, J. M. (2005). Evaluation of a communicative EFL curriculum. *English Teaching*, 60(4), 375-398.
- Pyo, K.-H. (2006). Different needs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in the curriculum development. *Foreign Languages Education*, 13(3), 1-22.
- Richards, J. C. (2001). *Curriculum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n, M.-K. (2010). The reflect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in the repres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target cultural content in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Secondary English Education*, 31, 69-84.
- TESOL. (1997). *ESL standards for pre-K-12 students*. Alexandria, VA: Author.
- TESOL. (2006). *TESOL PreK-12 language proficiency standards framework*. Alexandria, VA: Author.
-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7).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Author.
- Wilkins, D. (1976). *Notional syllabus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bstract>

A History of Korea's Foreign Language Curriculums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Development

Oryang Kwon

The present paper reviews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s for foreign language education in Korean secondary schools for the past 57 years. The review discusses the framework, courses, vocabulary, grammar, objectives, teaching methodology, and testing embodied in the curriculums. Since its beginning in 1955,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s have been revised eight times, with the latest one promulgated in 2011. In general, the curriculums have made progress in most aspects of curriculum, except vocabulary, which has kept shrinking in its size over the years for the alleged purpose to alleviate the students' burden of studying. The paper addresses some problems of the current curriculum, such as overly diversified courses, ambiguity in achievement standards, lack of connection between communicative functions and achievement standards, insufficient time for curriculum revision, and lack of expertise of the curriculum developers. The paper made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curriculum development.

**【Keywords】** curriculum, foreign language curriculum, English curriculum,  
curriculum development